

변양균씨, 신정아 감독 선임에 도움 실토

■한갑수 前 이사장·이종상 교수 관계 없다

외압 없었다더니... '모종의 역할' 의혹 증폭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를 광주비엔날레감독으로 임명하도록 도와줬다고 청와대 민정실에 실토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신씨를 임명한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과 신씨를 추천한 이종상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변양균 전 실장이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신씨를 광주비엔날레 감독으로 밀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갑수 이사장과 이종상 교수의 역할과 책임은 시급히 밝혀져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한 전 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은 11일 밤 본지와 통화에서 여전히 "외압을 받은 바 없다"며 의혹을 강력 부인했지만 이전 어떤 그대로 믿어주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한 전 이사장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소위(이하 선정소위)로부터 넘겨받은 8명의 국내 감독후보 가운데 결격사유가 발견된 인사를 제외한 유일한 인물이 신정아씨였다"며 외압설을 강력 부인해왔다.

그러나 한 전 이사장은 7월초 박만우, 이영철, 신정아씨 등 3명이 최종 감독 후보로 올라왔을 당시 선정소위의 일부 위원들로부터 신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독으로 발탁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 전 이사장이 일부 인사들의 부정적인 견해에 따라 박씨와 이씨를 감독후보에서 배제한 것과는 형광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한 전 이사장과 만난 A위원은 "신씨가 나이가 너무 어린데다 국제적인 전시경험이 적기 때문에 감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이사장이 검증되지 않은 신씨에게 비엔날레를 맡기는 것은 무리라는 부



〈이종상 교수〉



〈한갑수 前 이사장〉

한갑수씨 기획원 차관때 변씨는 예산실장

미술애호가 변씨 이종상씨와 교류 가능성

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선임에 강행한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한 전 실장과 한 전 이사장은 공직 생활의 인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 전 실장이 비엔날레 감독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전 실장은 한 전 이사장이 경제기획원 차관으로 재임할 당시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총괄실장으로 근무했다. 또 한 전 이사장은 한 전 실장이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됐을 당시 축하 전화를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한 전 이사장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변씨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통화한 적은 있으나, 까마득한 후배인 그가 나에게 청탁이나 부탁전화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신씨를 비엔날레 감독 후보로 추천한 이종상(예술감독선정소위 위원장)씨의 행보도 의문이다. 이씨는 감독후보 추천 마감 당일인 5월14일야 신씨와 윤진섭 호남대학교

예체능대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2명을 추천했지만 윤씨의 경우 이미 1기 예술감독선정소위에서 감독후보로 추천됐다 배제된 인사로, 사실상 신씨 한 사람을 추천했다고 볼 수 있다. 윤씨는 이후 8명의 감독 후보군에 포함됐으나, 감독선정권을 가진 한 이사장과 면접조차 하지 못했다.

이같은 정황은 이씨가 누구로부터 압력을 받고 신씨를 감독에 앉히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왔다.

또 학장시절 화가 지망생이었던 데다 개인 화실까지 있는 변 전 실장이 미술계의 대표적인 원로인 이종상 교수와 일면식이 없을 수 없다는 미술계의 관측도 둘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즉, 신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변 전 실장이 이씨에게 비엔날레 감독선임을 자연스럽게 부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선정소위 위원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6월27일 선정위의 고유권한인 감독선정권을 포기하고 한 전 이사장에게 감독선정권을 전적으로 일임하는 안건을 발의하고, 사실상 관철시킨 바 있다.

"감독선정권 일임"과 관련, 외부 입김을 등에 업은 인사의 '치밀한 작입'이 아니었는 의문도 제기된다.

선정소위의 투표 결과 8명의 후보 가운데 3표를 얻은 신씨는 1, 2차 회의를 거치면서 최종 후보군을 압축할 때까지 전혀 거론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3차 회의에서 신씨를 포함한 8명 후보 전원을 이사장에게 추천하기로 해 신씨가 부활의 발판을 마련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2~16일 여수엑스포 2차 국제심포지엄

'환경 여수' 회원국에 각인

'막판 표심을 잡아라.'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월 27일)을 두 달여 앞두고 12일부터 열리는 여수엑스포 유치권 2차 국제심포지엄은 국가와 지역 숙원인 엑스포 개최권 확보의 발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2 엑스포 유치 신청국이 개최할 수 있는 두 번의 심포지엄 가운데 우리로서는 마지막인 이번 행사가 지금까지 모로코에 근소하게 앞서 있는 판세를 확실하게 굳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심포지엄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학자와 환경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초청하고, 주제도 '지구온난화와 살

을 대대적으로 초청해 경쟁국의 심포지엄과 차별화함으로써 막바지 득표전에서 상대국의 기를 꺾어 놓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2차 심포지엄의 저변에는 최근 모로코가 지지국의 BIE 회원 가입유도 배제 규약을 어기고 친 이슬람권 국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흐름에 쐬기를 받고 한국의 확실한 우위를 국내외에 확인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준비에 발맞춰 전남도와 여수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지역을 확실하게 알리기로 했다. 대규모 BIE 회원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침수위기' 투발루 환경장관 통해 경각심 전달

모로코 상층에 막고 한국 우위 세계에 재확인

가시성이 가려진 인구에 대한 위험과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국제적 관심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2012 여수엑스포유치위가 이번 심포지엄에 맞춘 포커스는 국제 사회 최대 관심사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과 미래 자원으로서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과제에 대해 여수엑스포가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마당이라는 점이다.

특히 심포지엄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 국가 전체가 침수위기에 직면해 전 국민을 이주시키거나 이주 시키고 있는 투발루의 티바우 테이 부총리 겸 환경부장관도 참석해 환경제약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세계적인 석학과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장·차관 등 고위 관료 및 각국의 BIE 대표단과 BIE 주요인사 등

심포지엄에서 2012 여수엑스포 개최 준비 상황과 주변 여건을 상세하게 알리는 것은 물론 대표단이 지역을 방문할 때 깊은 인상을 심어줘 득표로 연결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오는 15일 대표단의 여수 방문을 지난 4월에 이은 '제 2의 실사'로 간주해 여수시 각 도로변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도시 경관을 다듬는 한편 시민들의 엑스포 유치 열기를 보여줌으로써 마지막 표심을 붙잡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준영 전남지사는 심포지엄이 끝난 직후인 오는 17일부터 도립국악단원으로 문화사절단을 구성해 다음달 4일까지 도미니카연방, 세인트루시아, 아이티 등 7개국을 순회하며 엑스포 유치 득표 활동을 벌인다.

/박치경기자 unipark@

■신정아 승승장구 배경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신씨가 자신이 기획한 전시에 대기업의 후원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던 배경도 관심이 있다.

2002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신씨가 성곡미술관에 근무하는 동안 상당수 전시에는 대기업의 후원이 붙었다. 특히 신씨가 학예연구실장을 맡은 2005년 1월 이후에는 기업 후원이 부쩍 늘었다.

2005년 4월 성곡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인 '쿨&웜'전에 대우건설, 11월 '아틀리

카씨 등에 업고 CEO 상당수와 친분

에 아담스'전에 대우건설과 라 포토그래프,

2006년 7월 '존 버닝햄 40주년 기념'전에 대우건설·산업은행·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 11월 '알랭 플레셔'전에 대우건설·산업은행·기아자동차·하나은행·신한은행·포스코·파라다이스 등이 후원했다.

신씨는 성곡미술관에 앞서 금호미술관에 재직할 때는 별다른 기업 후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1999년 어린이 전시 '쿨룩이와 돌박해' 때 모체과업체로부터 과자를 후원받은

적이 있다.

미술계에서는 신씨가 기업 후원 유치에 발벗고 나선 것은 삼성미술관이나 금호미술관, 대림미술관 등 다른 기업미술관과 달리 모기업(쌍용)이 부실화한 성곡미술관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후원을 따내는 수완에는 혀를 내두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미술인은 "신씨가 은행과 건설회사 등이 미술품 투자나 건축물 장식에 쓰일 미술

작품을 구매할 때 자문 역할을 해줬다는 소문이 많았다"며 "그 과정에서 기업들과 얼마든지 친분을 쌓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미술인은 "신씨가 밤마다 크고 작은 모임이나 파티를 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유력인사들이 모이는 미술아카데미 등에 자주 얼굴을 내밀고 미술계 원로들과 절친하게 지낸 것도 모두 의도가 있어서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정아씨 스스로 "우리 미술관은 가난한 미술관이어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된다. 전시장도 개보수하고 전시도 계속하려면 기업 지원 유치가 필수"라고 종종 이야기 해왔다는 것이 미술계의 전언이다. /연협뉴스



정몽구 회장, 여수 명예시민 위촉

여수박물관 유치위 명예위원장이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이 11일 오전현설 여수시 장으로부터 명예 여수시민증을 받은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연협뉴스

Advertisement for 'Asia Cultural Center' featuring various food items and a central figure. Text includes '꿈이 씨가 된 꽃', '글씨꽃',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곡', and '문화관광부'.